

Study Guide

비폭력 국가방어 : 덴마크

비폭력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권리를 쟁취하거나 독재정권을 타도한 운동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덴마크에서의 그것은 달랐다. 덴마크인들은 비폭력행동을 침략자에 저항한 국가방위의 형태로 이용하였다. 저항은 독일 전쟁기계를 물리칠 만큼(이것은 연합국 군대의 몫으로 남음) 강력하진 못했지만 덴마크 사회와 문화를 보호하고 덴마크 자원을 착취하려는 독일의 노력을 방해했다.

첫 번째 저항은 덴마크인들의 민족정체성의 표현이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언어수업에서 독일어로 말하는 것을 거부했다. “합창회”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덴마크의 전통 음악을 노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든 방법으로 덴마크인들은 그들의 자치권을 주장한 것이다.

파업은 효과적으로 독일의 통제에 도전했다. 1943년 여름 노동자들은 수십 개 도시에서 통행금지, 공장 및 조선소에 군대 배치, 군인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항의하는 파업에 들어갔다. 일 년 후 새로운 통행금지는 코펜하겐 총파

타임라인

1940년 4월 9일, 독일 덴마크 침공

1942년 초, 점령당한 덴마크에서 독일 반대 사보타주 시작

1943년 7월, 독일 반대 파업이 오덴사에서 시작되어 덴마크 전역으로 퍼짐

1943년 8월 28일, 덴마크 정부 시위를 강력 탄압하라는 독일의 최후통첩을 거부, 이에 대한 항의로 덴마크 수상 사임

1943년 9월 16일, 해방위원회 결성

1943년 10월, 독일 덴마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시작, 하지만 다른 덴마크인들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스웨덴으로 탈출

1944년 6월 26일, 코펜하겐 노동자들이 일찍 퇴근하기 시작, 총파업

1944년 7월 3일, 독일 당국자들이 파업 참가자들의 요구 사항에 굴복

1945년 5월 4일, 독일 연합국에 항복

덴마크인들을 위한 십계명

Arne Sejr는 독일이 침공했을 당시 17살이었다. 점령 첫날, 그는 동네 사람들이 독일 군인들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을 알고 화가 났다. 그는 집에 돌아가 동료 덴마크인들을 위해 “십계명”이 적힌 전단지 25장을 만들었다.

1. 독일과 노르웨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다.
2. 독일을 위한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
3. 독일을 위한 일은 천천히 한다.
4. 중요한 기계와 도구는 파괴한다.
5. 독일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것들은 모두 파괴한다.
6. 모든 교통수단을 지연시킨다.
7. 독일 및 이탈리아 영화와 신문을 보이콧한다.

업의 계기가 되었다. 군부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파업참여자들은 독일이 통금을 해제할 때까지 저항을 지속했다. 독일은 점령에는 시민혼란과 생산차질이라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가장 극적인 자기방어 행동은 1943년 가을에 있었다. 10월 1일 금요일, 덴마크의 최고위 독일 관료인 위너 베스트가 모든 덴마크 유대인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유대교 신년제 행사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임박한 불시단속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즉시 흩어져 숨었다. 모든 덴마크 단체들은 유대인 가족들에게 쉼터(개인들의 집, 병원 등)를

- 8. 나치 매장에서 쇼핑을 하지 않는다.
- 9. 배신자들은 그들의 가치만큼 대우해준다.
- 10. 독일에 쫓기는 누구라도 보호해준다.

덴마크 해방을 위한 투쟁에 함께합시다!

그리고 Sejr는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우체통에 이 십계명을 쑤셔 넣었다. 나중에 이 십계명은 다시 카피가 되어 여러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전국에 전달되었다.

제공하고 그들을 해안가로 실어 날랐다. 해안가에서는 고기잡이배가 그들을 태워 스웨덴으로 가는 좁은 수로를 건넜다. 결국 대략 7,000명의 덴마크 유대인들 중 472명만이 독일에 붙잡혔다. 덴마크인들은 물리적으로 독일군을 쫓아낼 순 없었으나 홀로코스트의 손아귀에서 가장 위협받는 시민의 대다수를 구할 수 있었다.

시놉시스

1940년 4월 9일,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얼마 후 독일군이 덴마크를 침략했다. 덴마크군은 심각하게 수적으로, 군사력으로 열세의 상황에 처해있었고 정부는 싸우지 않고 독일의 입성을 받아들였다. 나치의 목표는 덴마크 농업과 산업을 착취해 유럽에서 전쟁을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덴마크 정부를 그대로 두는 것이 덴마크인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다.

저항은 서서히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덴마크 문화를 보여주거나 나치 반대 지하 팸플렛을 만들거나 고립되어 사보타주 행위를 하는 등 제한적이었다. 1943년 여름, 독일이 덴마크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덴마크인들의 분노는 대규모 비폭력항의로 타올랐다. 옌센세와 다른 산업도시들에서 파업이 시작되었다. 독일은 지하저항조직에 충격요법을 쓰는 것으로 보복했다. 그해 가을 나치무장친위대가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시민들은 대부분의 유대인 가족들을 숨겼고 안전을 위해 그들을 페리에 태워 스웨덴으로 보냈다.

1944년 코펜하겐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독일이 통금을 해제하도록 만들었다. 그 시기부터 전쟁이 끝난 1945년 5월까지 저항은 지하조직인 해방위원회가 조직한 전국 총파업을 포함 점점 더 비폭력적, 조직적이 되어 갔다. 덴마크의 저항은 독일을 몰아내지는 않았지만 나치 전쟁기계에 무기와 식량을 제공하는 믿을만한 공급처로서 덴마크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목표를 좌절시켰다.